

전남

전남·북 상수도 보급률 저조

전국 평균 훨씬 밑돌아... 수도요금도 비싸

전남·북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수도요금 역시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국 165개 수도사업자를 조사해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전남과 전북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각각 73.7%와 89.5%로 전국 평균 93.5%에 비해 저조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제주 100%, 부산 99.9%, 대구 99.8%, 경기 95.3% 등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7개 특별·광역시 지역의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99.4%로 가장 높았고, 도시 98.6%,

읍 88.8%, 면단위 농어촌 51%로 파악됐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1㎡당)은 생산원가 761.6원의 80.1% 수준인 609.9원으로 2008년(613.2원)보다 조금 떨어졌다.

시·도별 수도요금은 울산이 763.1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남(755.7원) ▲전북(750.0원)순으로 높았고, ▲대전 497.6원 ▲광주 506.3원 ▲서울 514.3원 등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레저시설이 많아 물 사용량 증가로 평균요금이 증가한 강원 정선군

(1348.5원)이었으며, 요금 현실화를 못한 경북 군위군 (367.9원)이 제일 싼다.

수도관 사고와 배수지 균열 등으로 인해 급수 사용자 계량기 이전에 손실되는 수량을 나타내는 '누수율' 역시 전남 23.2%, 전북 20.8%로 전국 평균 11.4%보다 높았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남지역에 공급하는 원수 가격과 정수대금은 타지역과 동일하다"며 "수도요금은 전남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흑색토마토·오색미... 요즘 농산물 트렌드는 '컬러'

도시소비자들 선호... 도내 재배 증가추세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 최광호(41·신선영 부부)는 시설하우스 2300㎡에서 이색적인 흑색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다. 이 흑색 토마토는 남아메리카 갈라파고스제도...

녹미, 적미, 녹미 등 다채로운 색깔의 기능성 쌀을 재배, 역대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역대농부들이 늘고 있다.

영광과 해남지역에서는 보라색의 '자수정 보리'재배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는 일반 양파외에도 보라색 자색양파를 재배하고 있다.

고흥군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신세대들이 즐겨찾는 골드, 레드 계통 참다래(키위)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골드키위 신품종 '해금'재배면적을 현재 14%에서 30%까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컬러 농산물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도시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농가소득 또한 높기 때문이다.

보라빛을 띠는 '자수정 참보리'는 항산화기능을 가진 천연색소 안토시아닌을 g당 65mg 함유할 뿐만



강진군 최광호·신선영 부부가 시설하우스에서 기능성 흑색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아니라 당도병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 함량도 많다.

일반 그린키위인 '해이워드'의 경우 10a당 2000~3000Kg을 생산, Kg당 가격은 2500~3000원 정도이지만, 골드키위인 '제시골드'와 '해금'은 10a당 4000~6000Kg까지 생산

이 가능하고 가격도 4000~5000원으로 3배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을배 기술지원과장은 "도시 소비자들이 웰빙 열풍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과 함께 기능성을 선호하는 등 농산물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 관광문화사업 대폭 확대

예산 3168억 투입... 천혜의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전남도가 내년도 관광문화분야에 전년 대비 32% 늘어난 3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생태녹색·문화관광개발사업 등 관광문화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세계적 수준의 섬·해양 자원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및 청정한 땅 등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해양 및 생태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관광문화분야 직접 추진 업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섬·해양자원 개발로 파급

효과 극대화 ▲중국어인 대상 서남해안 나조 특화상품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숙박 등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정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지원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레저산업 강화 등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 올 한해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상품 개발,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활동 기반조성, 전국 규모의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이벤트로 스포츠산

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행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0 명랑대접축제에 관광객 32만명이 방문한 것을 비롯해 남도명품 1박2일 계절상품(70여종), 남도예술은행 토요일매(2299점), 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310회) 운영, 동계전지훈련(55만명) 유치를 통한 557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양복관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관광인프라 확충이나 업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모든 도민이 친절하고 따뜻한 말씨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남을 찾는 외지인을 맞이하는 참예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유기재배 토양, 일반 토양보다 건강

전남, '생물지표종' 선별 농업생태계 건전도 평가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벼와 배유기농업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농업생태계 건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생물지표종'을 선별했다. 이번 선별된 생물지표종은 흰색 갈다구·연못하루살이·복토기·넙적송장벌레·폭탄먼지벌레 등 5종이다.

토양 중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몸이 연약하여 많은 토양동물의 먹이사슬에서 최하위에 속하여 토양중의 플라크톤으로 불리는 것으로 거미류와 딱정벌레, 응애류의 좋은 먹이감이다.

또한 과수원내의 썩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청소부역할을 하는 '넙적송장벌레'는 일반 과수원에서 4마리만 채집됐으나 유기재배에서는 18배나 많이 발생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김도의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농업 논의 재배년수와 재배방식별 생물다양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포도와 단감 유기농 과수원의 토양 생물상을 조사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하는데 공익적 가치를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완도해경, 해상통한 밀입국 단속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총경 심병조)는 지능화·다양화 되는 해상 밀입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와 공조 수사를 실시해 밀입국 경로에 대한 감시와 압선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밀입국자들에게 선박·차량 등 교통편 및 숙박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밀입국자들을 숨겨

주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출국 돼 우리나라 정식으로 입국할 수 없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입항하는 화물선에 몰래 숨어들어 오거나, 소형 선박을 이용해 해안이나 도서지역으로 직접 상륙하는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사증(VISA)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제주도 입국후 육지로 불법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호기자 ejchung@

'신안 김' 전국 최고

1040속 출품 김 품평회

신안산 김이 전국 최고 명품 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운선도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전남도 관계자 및 마른 김 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김 품평회'를 개최했다.

심사 결과 신안 수도영어법인(대표 이옥현)의 김이 대상을 받아 최고 명품김으로 평가받았으며 ▲전북 부안 낙원수산(대표 김종환) ▲해남 동원수산(대표 이성민) 김이 각각 우수상, 대상을 받았다.

이번 품평회에는 전남을 비롯한 전북, 경기, 충남, 부산 등지 22개 업체에서 마른 김 1040속이 출품돼 업체의 공백, 김 특유의 맛과 향, 이물질 포함 여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쳤다.

대상을 수상한 신안 수도영어법인 김은 김의 원초 맛을 그대로 살려 향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앞으로 매년 김 품평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김 품질의 비교평가와 자율경쟁을 유도, 최고의 명품 김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복지시설에 성금 '훈훈'

대한지적공사 무안지사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지사(지사장 김기만)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시설인 주바라 무안복지회관을 방문해 성금 및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직원들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평소 애용하던 무안군지사(지사장 김기만)가 각각 2000원씩을 기부했다.



김기만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공기업으로서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able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